

李-朴 '퇴로없는 혈투' 시작된다

오늘 후보등록…대선 레이스 개막
경선 불복 분당·독자출마 불가능

한나라당이 11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2007 대선을 향한 대장정의 공식적인 막을 연다.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사흘간(11~13일) 예정돼 있는 등록기간 첫날 끝바로 후보등록을 하고 출마의 변을 담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 출사표를 던진다.

현행 선거법상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경선결과에 불복해 독자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보등록을 계기로 양 주자간 '퇴로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일하는 지도자', '경제 하나는 확실하게 살리겠습니다'를 모토로 내걸고 있는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 대리인을 보내 후보등록을 한 뒤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회견에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7% 성장, 4만 불 국민소득 시대, 7대 경제대국이라는 자신의 '7·4·7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안에 선진국 진입,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박 전 대표는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대선출마를 선언한 뒤 측근을 통해 당 경선관리위원회에 경선후보 등록절차를 밟는다.



지난 9일 경기도 이천 설봉산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기도당 등반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上)과 박근혜 전 대표가 당원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 공동선대위원장 안병훈·홍사덕씨

광주선대위원장 박영철·전남선대위원장 안희석씨

101명 규모 경선 캠프 구성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10일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과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을 공동선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등 경선 캠프 구성에 착수했다. 현역의원 30명, 원외당협위원장 35명, 외부인사가 36명에 이르는 101명 규모의 매력 드림프다.

광주·전남지역 인사로는 이환의 전 의원이 상임고문, 박영철 전 대사가 광주시 선거대책위원장, 안희석 전 한나라당 무안·신안지구당위원장이 전남

도 선거대책위원장, 이정현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공보특보를 각각 맡았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상임고문으로는 서청원 전 대표, 김용환·현경대·강창희 전 의원이 활동하게 됐으며 캠프 상황을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장에는 최경환 의원, 정책메시지총괄단장에는 유승민 의원 등 핵심 측근들이 포진했다.

이와 함께 대변인은 김재원·이해훈 의원의 공동체제로 결정됐고, 그동안 박 전 대표 수행과 대변인 역할을 함께 맡아왔던 한선교 의원은 수행단장으로 자리를 물려줄 예정이다.

조직총괄본부, 직능총괄본부, 2030 국민참여본부, 미디어홍보본부, 정책메시지본부 등 5개 본부는 각각 김무성(조직), 허태열(직능), 김성조(국민 참여), 김병호(미디어홍보), 서병수(정책메시지) 의원이 담당기로 했다. 특보단장은 김영선 의원, 비서실장은 유정복 의원이 맡았다.

권역별 대책위원회의 경우 수도권은 서청원 상임고문, 충청권과 호남권은 강창희·김무성 의원이 각각 맡아 쟁기되, 영남권 등 나머지 권역은 일단 인선을 보류했다.

시도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해훈(서울), 엄효성(부산), 이해봉(대구), 이경재(인천), 이인기(경북), 김기춘(경남) 의원, 오해룡 전 울산 시의회의장(울산), 전용원(경기), 송광호(충북), 이진구(충남), 이형배(전북), 현경대(제주)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관위는 노대통령 검찰에 고발해야"

조순형의원 선관위장에 서신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증립 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려철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선거증립의무 위반을 계속하는 노 대통령에 대해 검찰고발 등 실효성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서신에서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의 관례 및 결정의 수용을 거부하는 노 대통령의 언행

은 현정질서 과괴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전원회의를 말했다.

그는 또 "국정의 최고책임자이며 국법집서를 누구보다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선관위의 경고도 무시하고 거듭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이는 현정과 법치주의의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무원과 정당이 선거법을 존중하고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범여 주자-종교계 연석회의 불발

한명숙·김혁규 "손학규·문국현 참여해야"… 불참 통보

6·10 항쟁 20주년을 맞아 종교계 원로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범여권 대선주자 연석회의가 종교계 및 시민사회 진영 내부의 이견과 대선주자 간 격차심으로 인해 무위에 그쳤다.

진보성향의 종교계 인사로임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종교협)는 10일 오전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 한명숙 전 총리, 김혁규 전 정부 의원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한 전 총리와 김의

원이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종교협측 관계자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연석회의를 일단 취소했다"며 "상황을 봄아연석회의 일정을 다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석회의가 무산된 데에는 종교계 및 시민사회 진영의 복잡한 내부 사정과 대선주자간 신경전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종교계 일각에서 범여권 대선주자

지지를 1위의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잠룡으로 거론되는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참여하지 않는 연석회의는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 전 총리와 김 의원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 불참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사회진영의 정치결사체인 '미래구상'이 11일 항쟁선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이 연석회의를 통해 '국민경선 및 후보 단일화'에 합의할 경우 시민사회 주도의 범여권 통합구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 언론 14일 '맞짱토론'

김영우씨 "박근혜 측 유족 비난 용서 못해"

라며 제안 철회 배경을 설명한 뒤 "앞으로 장학회를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도 정수장학회 이사진이 박근혜 측 일가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래 부실기업이었는데 인수해서 잘 키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최소한의 도의를 저버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앞으로 재산반환·손해배상·제재 운영권 반환 등 조치가 이뤄질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대로 장학사업을 이어 가되 재단 이름은 아버지의 흐를 때 '자령장학회'로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씨는 "정수장학회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던 3년 전부터 당시 재단 이사장 박근혜 측에 공동 운영을 제의해 왔으나 그 제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이어 "지난달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리

가 나온 뒤 박 전 대표와 정수장학회

쪽에서 유족들에게 무지막지한 비난

을 퍼부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연합뉴스

기자실 통폐합 등 5·22 조치와 관련해 언론계에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과의 '맞짱토론'이 14일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언론재단과 기자협회 등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대통령과 기자들의 토론회 생중계를 위해 공중파 방송 3사와 협의 중에 있고, 패널 및 사회자 섭외도 진행 중이다.

현재 패널로 거론되는 인사는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변용식 한국신문방송총집인협회장, 김환균 한국프로듀서연합회장, 이준한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임연숙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과 신문·방송·통신사 편집 보도국장 1~2명, 지방 신문사 편집국장 1명, 언론개혁운동단체 대표 1명 등 모두 11명 내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연동 1372 신성빌딩 1층

◆등록번호 616-81-11280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을 쳐보세요!

드아아~ **국교출발, 노동(고등)출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 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야에선,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

목포출발 "목카투어" 78,000원

★일정 · 1일차: 목포국제어객터미널 (09시 30분 또는 15시)출발-호텔1박
· 2일차: 제주관광 또는 힐라인등반-호텔1박
· 3일차: 제주관광-제주항(17:30)출발
(단, 일요일은 16:30출발)
★출발일: 매일출발(단, 일요일은 제외)
· 토요일은 9시20분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식사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1박2일 크루즈투어] 68,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4일 크루즈투어] 108,000원
(한라산등반+2일 제주관광)

[2박3일 크루즈+항공투어] 119,000원(주말)/139,000원(주말)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78,000원

★일정 · 1일차: 녹동 남해고속터미널(10시) 출발-호텔1박
· 2일차: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호텔1박
· 3일차: 제주관광-제주항(18:00)출발
★출발일: 매일출발(단, 일요일은 제외)
-금요일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식사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1박2일 크루즈투어] 45,000원+30,000원
(단, 미리 사전예약에 합니다. 당일 예약시 정상요금 적용)

[3박4일 여행] 78,000원
(단, 미리 사전예약에 합니다. 당일 예약시 정상요금 적용)

[조흥은행] 708-01-074067 제주무궁화관광

**광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주중+주말)
179,000원(주중+주말)**

★렌트카 파격할인★
전차종 75% 할인
※이번에 24시간 22,700원(네비케이션 포함)

1박2일 항공 골프투어 389,000원

월화수 휴일기준(광주 오전 출발, 제주 오후 출발)

*포함내역: 왕복선박, 편리한 헬기, 조식2회, 고등등 2박

2박3일 항공 골프투어 419,000원

월화수 휴일기준(광주 오전 출발, 제주 오후 출발)

*포함내역: 왕복선박, 편리한 헬기, 조식2회, 고등등 3박(제주 2박)

문의: ☎ 064-744-1109 www.jejumt.net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씨월드고속웨이

영어교육의 새로운 대안 한국 전화영어



상담 및 문의: 1588-8010
www.waw05.com

영업사원 모집
문 의: 062-526-0509
011-9222-4562